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소비자 심리지수, 3년 넘게 최저치로 하락
- Bloomberg: 섀다운 곧 끝나도 12월 연준 금리 결정 쉽지 않다
- WSJ: 뉴욕 연준 총재, 대차대조표 확대 시사
- YahooFinance: 연준 부의장, 추가 금리 인하 신중

[미국 금융]

- Bloomberg: 증시, 핵심적인 전환점 맞이해
- WSJ: 비트코인 10만불 아래로 일시 하락

[트럼프 행정부]

- Reuters: 백악관 고위 관리 "정부 섀다운 예상보다 심각"

[무역전쟁]

- Bloomberg: 트럼프, 항만 크레인 관세와 중국 선박 입항료 1년 유예 계획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미 항공기 취소 계획으로 여행 산업 "혼란"
- CNBC: 소매업체 홀리데이 시즌 채용 최저치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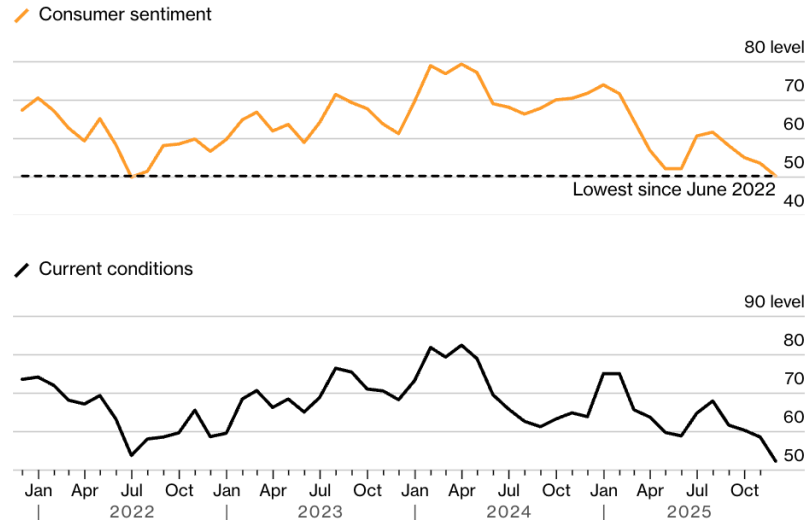
Bloomberg: US Consumer Sentiment Declines to a More Than Three-Year Low

미 소비자 심리지수, 3년만에 최저치로 하락

- 미 11월 소비자 심리가 3여년 만에 최저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방 정부 섀다운으로 경제 상황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고물가 미국이 재정상태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 미시간대학이 오늘 금요일 발표한 11월 소비자 심리지수 임시치는 50.3으로 지난 2022년 7월 일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 정부의 섀다운에 대한 부담 심리로 현재 경제 여건 지수가 6.3 포인트 하락한 52.3으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 심리지수는 연령, 소득 수준,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없이 모든 영역에서 하락했다. 민주당과 정치 중립 미국인들의 심리지수는 1984년 이래 관련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US Consumer Sentiment Drops to Lowest Since June 2022

The current conditions index sinks to record low



Source: University of Michigan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December Rate Decision Won't Come Easy, Even if Shutdown Ends Soon

셃다운공 끝나도 12월 연준 금리 결정 쉽지 않다

- 연준은 바로 전 정례회의에서 정부 셃다운으로 핵심 경제 지표없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 그런데 연준 관리들이 연방정부 운영이 재개되면서 받게 되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별 쓸모가 없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데이터는 과거에 수행한 수치들에 바탕을 둔 조사이기 때문이다.
- 연준 관리들은 노동시장이 12월 금리 인하를 할 만큼 충분히 약화되었는지 내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0월 일자리와 물가 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WSJ: Fed's Williams Hints at Resuming Growth in Balance Sheet

뉴욕 연준 총재, 대차대조표 확대 시사

- 연준이 연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 총재 John Williams는 최근 이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은행 준비금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돈이 축소되지 않게 된다.
- 지난주 연준 관리들은 오는 12월부터 6조 6천억 달러의 포트폴리오 축소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이른바 은행 준비금이라고 불리는 '전자 현금'이 금융시스템에서 고갈되는 것을 빨리 막는 것을 의미한다.
- 연준 대차대조표가 확대되면 연준의 현재 들고 있는 통화와 같은 연준 부채의 증가를 상쇄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금리 정책과 상관없이 단지 연준의 정책 결정이 금

용시장에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WSJ 기사

YahooFinance: Fed's Jefferson supported last week's rate cut, but wants to move slowly on further cuts

연준 부의장, 추가 금리 인하 신중

- 연준 부의장인 Philip Jefferson는 오늘 금요일 “일자리 우려 때문에 지난번 금리 인하를 지지했지만 향후 금리 인하를 서서히 해나가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 그는 현재의 정책 입장은 여전히 다소 제약적인데, 그러나 연준은 중립적인 수준(경제에 차지도 덥지도 않은 수준)으로 왔다고 덧붙였다.
-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립적인 금리 수준으로 나가는 가운데 인하 조치를 천천히 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YahooFinance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s Face ‘Critical Tipping Point’ as Key Thresholds Tested

증시, 핵심적인 전환점 맞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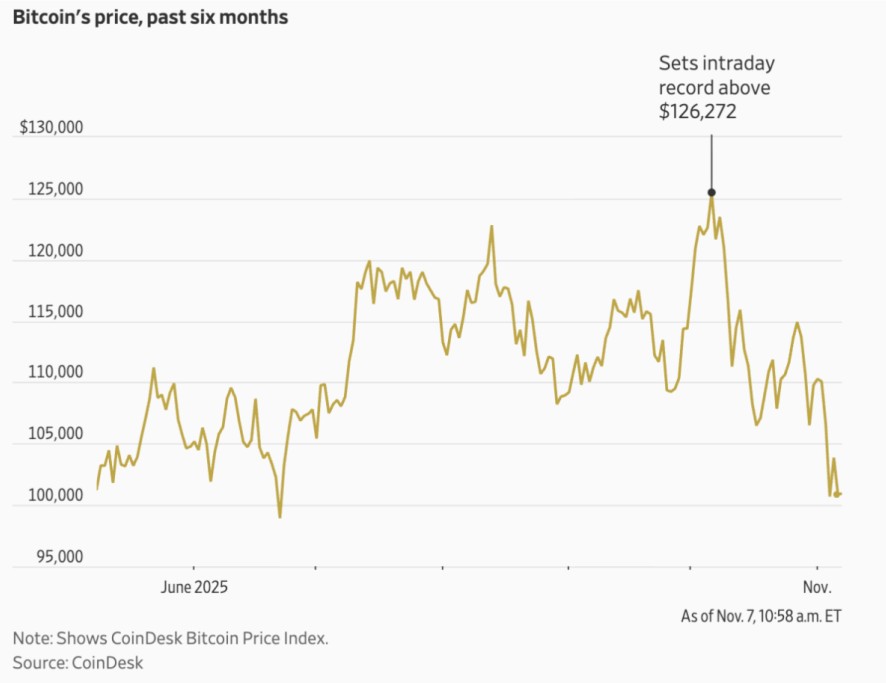
- 최근 변동성이 심한 증시에서 투자자들은 주요한 지지선(방어선) 역할을 하는 S&P 500 지수가 6,665(50일 이동 평균선) 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단서를 찾고 있다.
- 만약 이 지수가 그 아래로 떨어질 경우 기술적인 위축이 보이게 되며 반대로 6,748.10을 회복할 경우 위험 자산 선호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 S&P 500지수는 2.5% 떨어진 상태인데 20년만에 처음으로 10월에 기업들이 가장 큰 일자리 축소를 발표한 직후 투자자들은 빠져나갔다. AI로 인한 인력 축소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WSJ: Bitcoin Price Sinks Below \$100,000

비트코인 10만불 아래로 일시 하락

-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로 일시 하락했다. 오늘 금요일 들어서는 10만을 약간 상회하는 가운데 주춤거리고 있다.
- 이 같은 약세 신호로 투자자들이 신중한 모드에 있는 상황이다.
- 비트코인은 어제 목요일 잠깐 10만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나 어제 오후 4시 거래 종료 시점에서 10만 달러를 약간 상회했다.
- 비트코인은 지난 한달 전만해서 \$126,272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최근 빠르게 떨어진 위험 자산이다.



WSJ 기사

[트럼프 행정부]

Reuters: Impact of US government shutdown far worse than expected, White House adviser says
백악관 고위 관리 “정부 셧다운 예상보다 심각”

-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Kevin Hassett는 오늘 금요일 “미 정부 셧다운이 경제에 예상외로 큰 여파를 주었으나 셧다운이 끝나자마자 미 경제는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Fox Business Network와의 인터뷰에서 건축 분야가 둔화 상태로 접어들었고, 여행 산업이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 그는 여행과 레저 산업이 현재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한두 주간 계속될 경우 적어도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부분적으로 38일간 지속되고 있는 셧다운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노동시장이 다소 둔화 현상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Reuters 기사

[무역전쟁]

Bloomberg: Trump Plans One-Year Pause on Port Crane Duties, China Ship Fees
트럼프, 항만 크레인 관세와 중국 선박 입항료 1년 유예 추진

- 미국은 트럼프의 약속대로 중국과의 중간 합의로 이뤄진 중국 조선업에 대한 처벌 조치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 USTR은 항만용 크레인과 컨테이너 샤시(선박용 하부 프레임)에 대한 관세와 중국 건조/운항중이 배의 미국 입항료를 1년간 유예기로 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중국도 지난주 양국 정상 회담에서 미국에 시행한 보복 관세 조치들을 중단기로 합의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Flight-Cancellation Plans Prompt Scramble Across Travel Industry 미 항공기 취소 계획으로 여행 산업 "혼란"

- 미국 정부 섯다운으로 인해 미국 교통 당국이 금요일부터 상업용 항공 운항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40개 주요 공항의 상업 항공 운항 규모를 최대 10%까지 줄일 예정이다.
- 연방 관리들은 이와 관련해 정부 섯다운 기간동안 항공 교통 관제사와 공항 보안 요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인력 부족, 항공편 지연, 보안 검색 대기열이 길어졌다고 전했다.
- 미국 연방항공청(FAA)는 애틀랜타, 시카고, 뉴욕 공항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항 중 일부 비행 노선을 감축할 예정이라 전했다.
- 항공사들은 이에 따라 여행객들에 이러한 지침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취소된 항공편은 자동으로 재예약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항공사 임원진과 항공 교통 관제사를 대표하는 노조 간부들은 정부 섯다운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WSJ 기사

CNBC: Retailers' holiday hiring to hit lowest level since the Great Recession, says major industry trade group 소매업체 홀리데이 시즌 채용 최저치

- 전국소매업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은 올해 소매업체의 연말 홀리데이 시즌 고용이 265,000개에서 365,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지난 15년 동안 가장 낮은 근로자 수라고 밝혔다.
- NRF CEO Matthew Shay는 이러한 고용 전망이 “노동 시장의 둔화를 반영한다”고 전했으며, 소매업체들이 휴일 근로자를 442,000명 고용했던 1년 전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임을 강조했다.
- 그러나 이러한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NRF는 연말연시 지출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지출이 1조 1천억 달러에서 1조 2천억 달러 사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 소비자들의 지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업계는 고용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채용 시장 침체의 주요 요인을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 불확실한 환경에 처한 기업들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로 보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CNBC 기사

KOCHAM | 460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